

**철두철미 인민의 안녕을 위한
방역대전을 펼치시어**

**평양의 새 경관, 인민의 리상거리
끝이 없는 미래사랑으로**



금수강산

6

주체111(2022)
루게 제394호 월간



표지: 최대비상방역태세를 견지하며

무한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전 인민적인 방역대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 마음 안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가고있는 룡흥제약공장 생산자들.

본사기자 김성철

철두철미 인민의 안녕을 위한
방역대전을 펼치시어 2

방역대승의 개가를 높이 올려갈
우리당 별동대의 충전한 기상 16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 18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하시어 24

일 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2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마지막모습 26

평양의 새 경관, 인민의 리상거리 28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36

상원의 세멘트생산자들 40

우리의 태양찬가는 영원히 울려
퍼질것이다 4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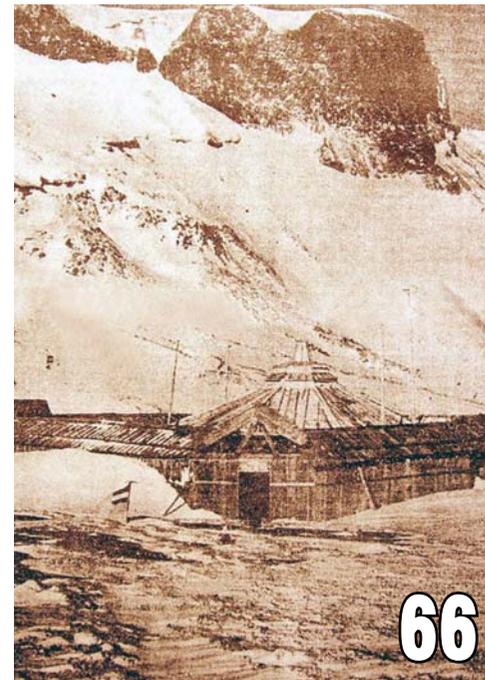
40



52



56



66

사람에 대한 새로운 견해 46

2만 1번째 소년단대표 47

끝이 없는 미래사랑으로 48

어린이들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에서 52

문 답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 54

한 청년이 대지를 활보하기까지 56

상 식
로화를 지연시키는 탁구 57

조국의 품에 안겨
초음파응용분야의 실력가 58

일본의 죄악, 도자기락탈 60

민족의 향기
활쏘기 62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한 국가들
민족의 시조국가 고조선 (1) 64

력사인물
음악가 려옥과 고대가요 《공후인》 65

백두산 (1) 66

철두철미 인민의 안녕을 위한 방역대전을 펼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 참석하시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이 더욱 악화되고있는 가운데 조국에 스텔스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가 류입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악성전염병전파사태를 신속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회의들을 소집하시고 적시적인 대책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회의에서는 먼저 2022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중상황에 대한 중간총화를 진행하고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6월상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나라앞에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지켜온 공화국의 비상방역 전선에 과공이 생기는 국가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맞게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를 결속하시면서 비상방역사업에서 철저히 견지해야 할 원칙과 과업들을 제기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최대비상방역체제의 기본목적은 우리 경내에 침습한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파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

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과근원을 최단기간내에 없애자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부족, 의지박약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이 있고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때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때문에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폐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하여 악성비루스의 전과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할데 대하여서와 과학적이며 집중적인 검사와 치료전투를 시급히 조직전개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당과 정부가 지금과 같은 비상시를 예견하여 비축해놓은 의료품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가동하기로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해당 단위들에서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는데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조직과 지도, 지휘를 더욱 빈틈없이 하여 당면한 영농사업, 중요공업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을 최대한 다그치며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련포온실농장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숙원사업들을 제기일안에 손색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 및 정권기관들에서 강도높은 봉쇄상황하에서 인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충을 최소화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사소한 부정적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신심을 굳게 하고 위대한 힘을 배가하여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단결로써 우리들자신의 귀중한 생명과 생활과 미래를 끝까지 지켜내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안의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료해하시였다.

루동안의 방역실패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과상황을 료해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전과확산되었다는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악성비루스의 전과를 억제하는데서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면서 사업단위, 생산단위, 거주단위별로 격폐 조치를 취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특히 현 위기를 타개하는데서 전과상황을 따라가면서 관리대책하면 언제가도 방역사업에서 피동을 면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주동적으로 지역들을 봉쇄하고 유열자들을 격리조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하여 전과공간을 차단하는것이 급선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과 비상방역부문에서는 유열자들의 병경과특성들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전문성있는 지도서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치료방법과 전술을 전격적으로 따라세우며 국가적인 의약품보장대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지침들

을 엄격히 준수하여 악성전염병의 전과를 억제하고 안정시키며 인민들이 국가의 비상조치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실행에서 고도의 자각성을 발휘하도록 정치선전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비상방역단위들에서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방역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능력을 높이며 제기되는 정황에 기민하게 대응할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갖추는데 대한 문제, 역량편성을 짜고들어 방역사업에서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실행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직면한 보건위기상황을 하루속히 역전시키고 방역의 안정을 회복하며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도전이고 지상의 과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방역전쟁을 승리적으로 주도해나갈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 전략전술을 천명하시였다.

5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최대비상방역체계의 가동실태를 점검하고 정치실무적대책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정치국은 먼저 5월 13일현재 전염병전과상황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보고를 청취한데 이어 전국적범위에서 전과확대되고있는 전염병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고 전략적주도권을 확고히 쥐기 위한 정치실무적대책들을 토의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의 요구에 맞게 긴급해제하는 예비의약품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문제가 집중토의되였다.

수요약품의 수송과 공급에 국가적인 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의약품들이 환자들에게 제때에 적실하게 전달리용되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절차들이 다시금 확정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세계적으로 신형코로나비루스전과상황이 매우 심각한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이 악성전염병의 전과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수 있지만 방역정책실행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에 기초한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태의 본질과 근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면서 현 상황이 지역간 통제불능한 전과가 아니라 봉쇄지역과 해당 단위내에서의 전과상황이며 대부분의 병경과과정은 순

조로운데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악성전염병을 능히 최단기간내에 극복할수 있는 신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가 주동적으로 과단성있게 취한 지역별봉쇄와 단위별격폐조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다시금 강조하시고 각급 비상방역단위들에서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방역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보다 치밀하게 하여 전염병확산추이를 반드시 역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보건 및 방역정책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각급 당조직의 일군들이 시련을 겪는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유능한 선도자, 친절한 해설자가 되어 방역전의 승세를 확고히 보장하며 각급 당조직들이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변함없는 충심을 안고 인민보위, 인민사수전에 결연히 떨쳐나 참여한 방역전쟁에서 항상 척후대, 돌격대, 방탄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은 그 어떤 최신의 학과과학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승의 비결,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도 훔내낼수도 없는 우리의 제일가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이 어렵고 간고한 방역대전에서 더 높이 발양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중앙이 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방역전에서 반드시 대승을 이룩할 결심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

달라고 제의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또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신속히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취할데 대한 문제, 비상방역사업에 저해를 주는 온갖 부정적현상들을 강하게 타격하기 위한 법률적대책들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토의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국가방역체계가 최대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한 후 전반적인 방역실태를 재점검하고 의약품공급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문제를 집중토의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국적인 의약품공급정형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국가가 조달하는 의약품들이 약국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때에, 정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어 의약품공급실태를 직접 료해하시였다.

히 가닿지 못하고있는것은 그 직접적집행자들인 내각과 보건부문 일군들이 현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지 못하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말로만 외우면서 발벗고나서지 않고있는데 기인된다고 하시면서 내각과 보건부문의 무책임한 사업태도와 조직집행력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방역사업전반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고 그를 시급히 퇴치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취해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지도일군들이 최대의 분발력과 투지, 비상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방역전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수 없다고 말씀하시였

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현 방역형세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여 방역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하시고 당면한 투쟁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또한 비상방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통제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 약국들에서 의약품취급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방역사업에 대한 법적통제의 도수를 한층 높일데 대한 문제, 국가적인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어 의약품공급실태를 직접 료해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약국들에 들리시어 의약품공급 및 판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였는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 봉사체제로 전환하였는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은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는 약은 어떤 약들이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의약품공급체계의 허점을 바로잡고 의약품수송과 관련한 강력한 실행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가 5월 1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서는 현 방역위기형세를 분석하고 당면한 방역정책실시와 최대비상방역상황에서의 당 및 국가정책집행방향에 대한 연구토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5월 17일현재 상반기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실태보고자료를 료해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에 제기할 문건들과 조직문제안을 토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활동에서 나타난 우결점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연구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간부들, 국가기관 일군들이 견결한 의지와 자신심,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간직하고 역할을 높이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중앙의 방침관철에서 뚜렷한 개진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준엄한 방역시련극복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과 국가기관의 책임간부들이 비상방역상황에서 경험이 미숙하여 앞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석하고 그들의 주도적역할과 창발성,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들을 연구협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5월 17일현재 전염병전파상황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보고서를 료해하고 현재 실시하고있는 국가비상방역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 과학성을 인정하였으며 오

늘과 같은 호전추이가 지속되고 방역형세가 변하는데 따라 국가방역정책을 부단히 기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반적방역전선에서 계속 승세를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의약품공급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사업전개

정형을 집중료해하고 의약품보급중심과 전국적인 지구별치료중심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대책안들을 연구할데 대하여 포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현시기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집행과 관련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방역전쟁초기에 각 부문에서 나타난 폐단과 결점들을 발전적견지에서 심도있게 비판분석하고 신속히 대책하며 당중앙의 해당 방침과 정책을 각 부문에 침투, 무장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더욱 완비하고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복종체계를 보강하며 모든 단위, 모든 일군들이 정세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극복해나가는데서 인식부족과 준비부족, 자의적해석과 자의적행동에 대한 방치를 허용하지 말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투쟁열도를 앙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형세속에서 당면하게는 악성전염병전파방지와 치료전투에 집중하는것과 동시에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사업을 다방면적으로 적극화하며 최근에 발로된 결함과 부족점, 취약한 고리를 퇴치하고 보건방역체도와 체계를 보강하여 우리가 현시기 직면한 방역위기가 국가방역능력건설의 가일층 발전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생활분야를 안정시키기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생활보장과 생활물자공급을 더욱 짜고들고 주민들의 치료수요와 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각방의 노력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회적동향과 군중의 목소리를 중시하고 제때에 료해대책하며 당과 국가가 취한 비상조치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잘 해설선전하고 준엄한 국가비상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여주며 모두가 자각적의무를 성실히 다하도록 교양인도하고 방역전쟁을 철저히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전민합세로 극복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맞다든 위기는 우리 국가의 모든 사업체계의 우단점을 판별해볼수 있는 시험대를 제공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비상시국의 모든 현상들을 정확히 투시해보고 비판적, 발전적견지에서 대책하며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사회의 각 부문의 사고와 행동을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적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로 통일시키고 모든 국가활동에서 당중앙과의 일치보조를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전당의 당세포들에 당중앙의 세포중시사상, 당원역할중시사상을 재침투시켜 당원들의 핵심적역할, 선봉적역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특히 간부들이 투쟁전구와 투쟁전선의 전위에서 당원대중, 광범한 군중을 이끌고 척후병으로 용감히 나서서 싸우며 방탄벽으로서의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비상시국하

에서 전당을 다시 한번 활화처럼 불러일으켜 우리 당 특유의 세련된 령도력을 력사와 시대 앞에 검증받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반드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또 다시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2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하고 현 국가방역능력의 정비보강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준비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나라의 전반적인 전염병전과상황이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되고있는데 맞게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종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악성비루스와의 방역전쟁이 개시된 지난 9일간의 방역사업실태를 개괄분석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업이 긍정적추이를 보이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방역전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와 우리식 사회주의체도의 정치사상적우세, 특유의 조직력과 단결력이 안아온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방역정책을 형세에 맞게 부단히 기동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그에 따르는 국가전략과 전술을 취함으로써 전반적방역전선에서 계속 승세를 틀어쥐고나가는것과 함께 경제전반을 활성화할수 있게 각방의 대책들을 강구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염병전과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열자, 확진자들에 대한 의료적대책을 개선해나가는 사업과 우리 당이 제시한 제반방역원칙과 조치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리의 보건방선을 굳건히 지킬데 대한 중요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예민한 고찰로써 국가적인 사업에서의 비효율성을 포착하고 국가위기 대응능력의 획기적발전을 이룩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근시안적이고 립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전략적인 안목에서 정비보강을 강력히 추진하

며 비상행동계획, 비상사업체계를 연구수립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의료일군들의 건강보호와 생활보장에 큰 힘을 넣으며 공산주의미덕, 미풍을 우리 사회의 훌륭한 작풍으로 배양시키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정신을 강화하여 악성비루스와의 전민항쟁에서 기어이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에 닥쳐온 방역위기 앞에서의 당의 임무, 당의 역할, 당일군들의 책무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인민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곳에 우리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서있어야 한다고,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변함없는 충심을 안고 인민보위, 인민사수전의 방탄벽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하는 지구별치료중심을 내오고 전국적의료력량의 균형적배치를 실시하는 문제, 평양시와 각 도, 구역, 군들에 의약품보급중심과 의약품보급거점을 설치하고 의약품공급사업의 효과성, 신속성, 안전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효능높은 고려약을 치료에 적극 리용할데 대한 문제, 제약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필수약품, 상비약품들의 품종을 늘일데 대한 문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일층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하게 세우는 문제들이 토의되고 해당한 정책적조치들이 강구되였다.

협의회에서는 다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상반기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기 위한 실무지도소조를 각 도에 파견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도간부들이 현지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약품공급과 치료, 생활보장, 방역조치실행 등 비상방역체계가동정형과 함께 주요정책적과업들을 집행하기 위한 공업부문들의 생산과 농업부문의 영농공정별실태들을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적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 * *



방역대승의 개가를 높이 올려갈 우리당 별동대의 충성한 기상



수도에 조성된 보건위기를 제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결의모임 진행, 약품보장전투에 전격진입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



방역전의 승세를 주동적으로 틀어쥐고 전염병진과사태를 신속히 억제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들이 전격적으로 취해지고있다.



COVID-19



각급 당조직들과 비상방역단위들에서는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사상과 정신에 준
하여 지금까지의 방역사업에서
로출된 허점과 공간, 폐단과 결
점들을 비판적, 발전적견지에
서 시급히 대책하기 위한 협의
들이 진지하게 진행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결정
한 방역정책들을 재침투하고 무
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하는것과
함께 자기 지역, 자기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속
에서 정당성과 효률성, 과학성이 확증된 방역정
책에 대한 자의적해석, 자의적행동을 철저히 근
절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과 통
제가 강화되고있다.
방역전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
제끼려는 전 인민적인 사고와 행
동의 통일, 자각적인 일치보조속에
비상방역전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
고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와 각급
비상방역부문에서는 최대비상
방역체계가 가동된 후 취해진
비상조치들을 부단히 기동적으
로 조정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실무적대책들을 강구해나가고있다.
방역부문과 보건부문의 협동하에 의약품보급



중심과 전국적인 지구별치료중심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대책안들에 대한 연구사업이 시작되고 해당한 지시들이 각 부문에 하달되고있다.

전국적범위에서 격리병동들이 증설되고 자택격리자들이 늘어나는데 맞게 전염병의 전파공간과 감염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소독사업이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평양시에만도 수천t의 소금이 긴급수송되어 소독약생산에 투하되었다.

남포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보건 부문 생산단위들에서 체온계를 비롯한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전국각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전격적으로 진척되고있으며 수도와 지방의 제약공장, 고려약공장들에서는 악성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효과를 볼수 있는 주사약과 전통적인 고려약들의 생산전투가 벌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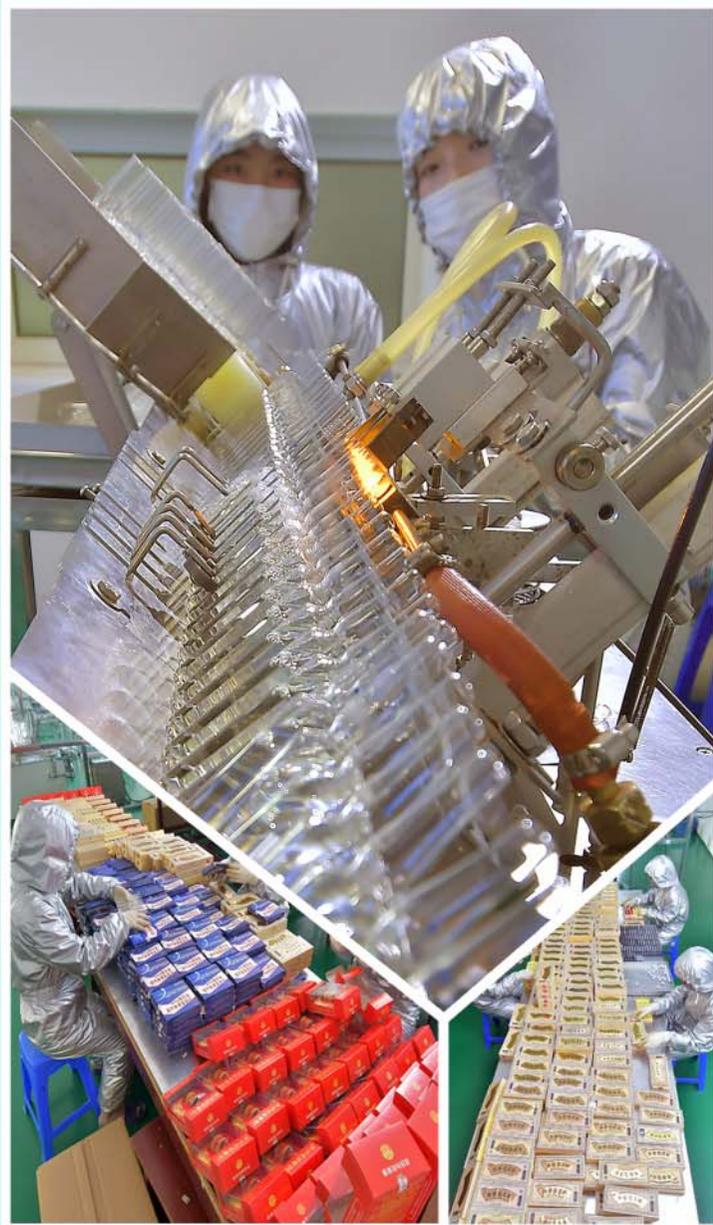
과학연구단위들에서는 전염병의 전과경로와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치료안내지도서의 내용을 부단히 보충하는 사업을 심화시키고있으며 유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격리기일과 격리해제기준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주변지역들에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들이 계속 발생, 전파되고있는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악성전염병의 전파추이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연구와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를 다방면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고있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는 지역별, 단위별로 격폐된 속에서 당과 국가가 취한 방역조치들을 엄격히 실행하면서 생산을 최대한 다그치고있다.

살림집건설, 대규모온실농장건설과 같은 중요대상건설장들과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에서 격리단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건설 및 생산현장들에 대한 방역학적관리를 선행시키면서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고있다.

각지 농업생산단위들에서도 모내기와 가물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최대비상방역레세를 견지하며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해막이에 동원된 인원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엄격히 하고 방역규정과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면서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방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복종체계가 보강되고 전 사회적인 자각적일치성이 더욱 높아가는 속에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 국가의 비상조치들이 엄격히 실행되고있다.

글 분사기자 전룡진
사진 조선중앙통신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하시여

주체53(1964)년 6월 19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조국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의 강화발전애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그이께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민위천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신 첫 시기부터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당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애국도 나오고 혁명도 시작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인민을 위해 헌생을 바치는것을 자신의 생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시였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그대로 당의 사상이 되고 로선과 정책이 된다고 하신 그이의 교시에는 인민을 중시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성격이 그대로 구현되어있다.

언제인가 방대한 산업시설건설로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필요로 하고있던 때였다. 당시 여의치 못한 사정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물론 공장을 짓자면 타산을 해박야 한다, 나는 타산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판알로 계산만 하면 인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는것이 나의 산수이고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계산방법에 의해 모든것이 긴장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산업시설뿐 아니라 평양산원, 창광원, 만경대유회장과 같은 수많은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으며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였다.

그이의 령도방식은 그대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 집약되어 당활동의 중요원칙으로 되였다.

정치지도자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낳으며 인민의 운명을 수호할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를 낳는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미래에로 향도하는 당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1990년대중엽 반공화국적대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다.

사회주의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라라는것을 굳게 확신하시였기에 그이께서는 결단코 선군의 길을 택하시였던것이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잠시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그이이시였다.

이 나날 선군정치라는 말은 인민의 가슴속에 그 어떤 정치적술어기 전에 사랑의 대명사로 새겨졌으며 인민은 실제힘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자기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며 휘황한 미래에로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이라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나는 조선로동당원으로서 우리 인민을 위해 사회주의강국을 꼭 일떠세우겠다는것을 확인한다시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초인간적인 의지로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걸으신 그이의 거룩한 영상이 조선로동당기와 더불어 오늘도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계승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를 처럼 여기신 인민을 수령님과

위민헌신의 나날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주체107(2018)년 1월 어느날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시였다.

무궤도전차에 오르시여 내부를 세심히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창문옆에 설치된 가름대를 바라보시며 일군들에게 가름대는 왜 설치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름대라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불편하지 않은가고 나직이 뇌이시며 한 일군과 나란히 의자에 앉으시여 몸소 확인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지금은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어깨가 전차에 설치한 유리보호대에 닿아 불편을 주게 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에는 유리보호대를 없애고 그대신 옆창문유리의 높이를 좀 작게 하면 어떻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전차에 설치한 수지로 만든 의자를 보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앉으면 선풍하고 차가울것같으니 의자에 무엇인가 씌워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하나의 가름대를 보시면서도, 하나의 의자를 보시면서도 인민들이 느끼게 될 불편부터 헤아려보시는 그이이시였다.

기쁨속에 하신 당부

주체105(2016)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레년에 없는 과일대풍을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곳으로 나오시였다.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

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 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이다.

인민의 리익을 언제나 최우선, 절대시하며 명실공히 어머니당으로 불리우는 조선로동당

그이께서는 가지마다에 붉은 사과알들이 주렁주렁 철렁아래가 온통 붉게 보이는데 장관이라고, 이런 풍경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밭으로 들어서시여 알알이 무르익은 사과알들을 만져보고 또 만져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과알에 한점의 상처도 나지 않게 고스란히 수송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몸소 첫 《손님》이 되시여

주체102(2013)년 12월 어느날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바야흐로 인민들의 량만과 웃음이 넘쳐날 그 순간을 눈앞에 둔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시종 미소를 거두지 못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스키장건설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스키주와 삭도를 비롯하여 스키운동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는것이라고 일깨워주시며 의자식삭도를 타보겠다고 하시였다.

아직 시운전도 해보지 못했기때문에 절대로 타실수 없다고 일군들이 한사코 만류해드렸건만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광범히 리용하게 될 삭도를 직접 타보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인해보아야 마음을 놓을것같다고 하시며 기어이 삭도에 오르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삭도의 안전가동을 위하여 자신께서 삭도의 첫 《손님》이 되신것이였다.

* * *

의 령도가 있어 조국은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성경

마 지 막 모 습

우리 부대가 원정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던 어느날 철주동생이 나를 만나려고 소사하에 찾아왔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소영자령에서 일본 지도관이 인솔하는 위만군수송대를 들이쳤다는 소문이 안도경내를 넘어 돈화와 연길지방에까지 파다하게 퍼져 어데 가나 그 전승담으로 술렁거릴 때였다. 송강, 대전자, 류수하자의 혁명조직들에서는 소영자령전투의 진상을 알리고 소사하에 일부러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나는 처음에 동생도 그런 사명을 띠고 나타난 것이라고만 짐작하면서 심상하게 대하였다.

그런데 내 짐작과는 달리 철주는 소영자령매복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입을 꼭 다물고 대원들이 제식훈련을 하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지휘부옆방에서 원정대에 망라된 대원들과 함께 짚신삼이로 하루해를 보내는 것이었다. 지휘부가 제정한 원정준비품들의 항목에는 짚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짐작을 바꾸어 철주가 소사하에 나타난 목적은 원정대의 출발준비를 거들어주러는데 있을 것이라는 제 나름의 판단을 하였다. 저녁시간이 다되었을 때 철주는 마을의 농민조직책임자를 만나보고 지휘부로 돌아오는 나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왔던김에 저녁이나 같이 나누고 가라고 하였지만 그 정도 사양하면서 그냥 돌아가겠다고만 하였다. 동생은 무슨 말을 할듯말듯 하면서도 종시 그것을 입밖에 내지 않고 좀 류다른 표정으로 나의 얼굴을 불안스럽게 살펴보는 것이었다.

나는 룡감적으로 동생이 원정준비나 거들어주자고 소사하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가 나를 찾아온 것을 보면 필경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나에게 터놓지 않으면 안될 사연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어머니나 동생 자신의 신상에 생긴 어떤 곡절일 것이었다.

나는 지휘부에 들리지 않고 마을어귀까지 철주를 바래주면서 동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혹시 토기점골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니냐?》

내가 토기점골이라고 한 것은 집을 넘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집이라는 말은 어떤지 입에 올리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철주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이였다. 연극을 잘하는데다가 해학이 풍부한 동생이어서 내 눈을 속일 수 있는 웃음썸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웃음은 서글픈 빛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쪽 귀통이가 인차 이그러져버리였다. 동생은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의 어깨너머로 먼 허공을 응시하였다.

《무슨 곡절이 있으면 있다가 실토를 해야지 말을 안하구 그대루 가버리면 나는 나대루 걱정이 될게 아니냐. 이것저것 재지 말구 어서 말해라.》

철주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더 위독해진 것 같아요. 이틀째나 밥 한순가락 드시지 않았어요.》

동생의 그 말은 퇴성벽력처럼 내 고막을 두드렸다. 나는 어머니가 음식을 전폐하였다는 말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중병으로 시름시름 앓아오셨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살 때만 하여도 어머니는

병상에 드시는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무송에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길림으로 중학공부를 떠난 다음부터는 종종 병환에 시달리였다. 철주가 이따금씩 편지로 나에게 그런 사연을 알려주곤 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런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혹시 수토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고도 생각하였다. 무송지방의 주민들 가운데는 토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 이 병에 걸리면 손이 까드라들고 손가락매듭이 굵어지며 목병이 나서 로동능력을 상실당할 뿐만 아니라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오동진이 무송에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길림으로 이사하라고 권고한 동기의 하나도 바로 이 수토병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데 있었다.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가보니 어머니는 수토병이 아니라 몸살을 앓고 계시였다. 한평생 휴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고달프게 살아온 파로의 독이 마침내 어머니의 건강을 침습하고야 말았구나 하는 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무서운 수토병이 아니라는 말에 얼마간 마음을 놓았다.

어머니는 안도에 오신 후부터 가슴앓이로 고생하였다. 그 당시는 가슴앓이를 《적》이라고 하였다. 가슴속에서 큼직한 무엇이 자꾸 치밀어 오르는 것 같다는 것이 어머니의 호소였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위암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사들은 《적》이 섰다고 진단은 내리였지만 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병에는 백약이 무효였다. 그저 가슴이 치미면 침상에 눕거나 끼니를 건느거나 미음을 꿀게 쥘서 몇술 뜨는 것이 유일한 치병방법이었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려고 그때 나의 동무들

이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썼다. 나의 친구로서 공청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을 보내주곤 하였다. 신문지상에 나는 광고를 보고 어머니의 병에 좋은 약이라고 짐작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사서 소포로 부치였다. 그런 소포는 길림서도 오고 심양서도 오고 할빈이나 룡정 같은 고장에서도 오곤 하였다.

안도지구의 고려의사들도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대사하에 있는 고려의사들은 돈도 받지 않고 어머니를 치료해주었다.

나는 철주의 총혈된 눈빛과 침울한 얼굴표정을 보고 어머니의 병세가 이제는 막다른 대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에 쌀이 있는가고 동생에게 물으니 그것도 바닥이 났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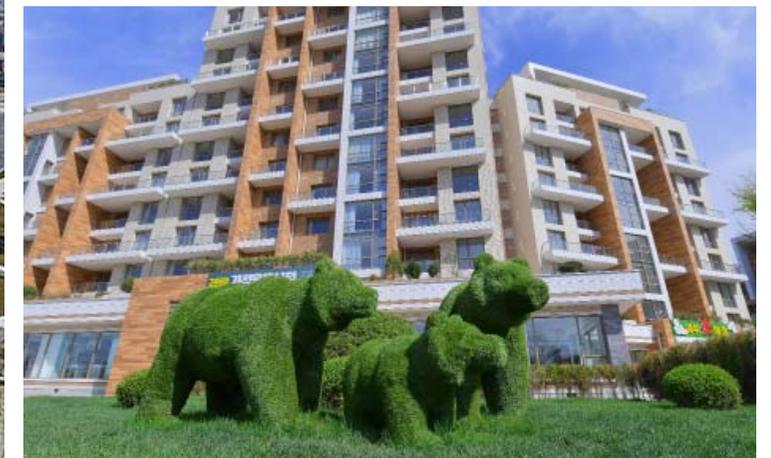
나는 다음날 소사하에서 동무들이 주는 돈으로 좁쌀 한말(대두 한말)을 사가지고 토기점골로 향하였다. 쌀 한말이면 세식구(어머니, 철주, 영주)가 한달 동안은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만한 시간이면 남만에 잤다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대두로 쌀 한말은 15kg가량 되었다. 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그때의 우리 집형편에서 쌀 15kg이면 잔치도 치를 수 있는 대단한 량이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그 한말의 좁쌀이 도무지 성차보이지 않았다. 멬빵이 어깨를 아프게 파고들었지만 나는 도무지 그 쌀집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에 비하면 오히려 솜털같이 가볍다는 생각만 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평양의 새 경관, 인민의 리상거리



지난 4월 조국의 수도 평양에 별천지가 펼쳐졌다.

수도중심부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조형화, 예술화, 실용성과 편리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섰다. 소층 및 다층살림집들을 배합하여 하나의 건축군으로서의 면모를 살리면서 건물과 자연이 하나로 융합되고 생활공간과 생태공간이 최대한의 편리와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보장해줄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독특하게 구성된 주택구는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는 주택구의 주변풍치와 원림경관도 이채롭다.

전나무, 소나무, 금일회화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장미를 비롯한 꽃관목들, 아름다운 화초들, 관상적가치가 있는 돌들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자연경관이 한껏

살아나 주택구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수도의 동쪽관문에는 시원하게 뻗어나간 대통로를 따라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교육, 보건, 편의봉사시설들, 고가다리, 장식구조물들이 특색있게 조화된 송화거리가 솟아났다.

희한하게 꾸려진 새집들의 열쇠를 받아안은 주인공들은 로력혁신자들과 공로자들, 평범한 근로자들이다.

무상으로 새집을 받아안고 꿈만 같은 현실에 너무도 감격한 이들은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들먹이고있다.

사람들은 새 주택구와 거리를 두고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이라고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대의 문명을 자랑





하며 일떠선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와 송화거리가 사회주의문명을 선도하며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서게 되는데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민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가장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110(2021)년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에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 수도에 5만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며 이를 위해 매해 1만세대씩 건설할것을 중요

목표로 제시하시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에 평양시 송신, 송화지구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0(2021)년 3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어 연설을 하시었다. 연설에서 그이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 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1만세대 살림집설계형성안을 보아주시면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었다.

뿐만아니라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수도중심부 보통문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 800세대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보통강강안지구 에 근로자들의 호화주택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다락식주택구건설의 발기로부터 완공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사실 보통문주변 강안지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리용하시던 저택(5호택)이 자리잡고있는 곳이었다.

이미전부터 5호택이 자리잡고있는 경치좋은 보통강강안지구에 다락식주택구를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 구상을 무르익히신 그이께서는 5호택을 철거하고 그 구역에 현대적인 다락식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 아마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기뻐하



실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좋은 자리를 묵여두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몸소 설계안들을 지도해주시면서 건물들의 배치와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형성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설계안들의 완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비내리는 곳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현장을 찾으시여서는 주민들이 주택지구로 에돌지 않고 곧바로 내려와 교통수단을 리용할 수 있게 소로길을 잘 내주는 등 편리성보장에 기본목적을 두며 주택구획과 주변의 원림록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보통강반의 공원들을 더 잘 꾸리는것을 비롯하여 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주택구의 행정구역명칭도 《경루동》이라고 몸소 지어주시였다.

그이의 위민헌신의 자욱이 있어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와 송화거리가 불과 1년이라는 기간에 건설되게 되였다.

진정 경루동과 송화거리는 인민이 바라는것을 정책으로, 국책으로 내세우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사랑이 안아올린 결실이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희한한 별천지들을 가리켜 사회주의변화가라고 부르고있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리영철, 조선중앙통신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조국에서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검덕지구 5 000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옹근 하나의 현대적인 거리와 맞먹는 큰 규모의 대상건설들이 진척되었으며 도시건설과 농촌건설, 산업건설과 문화시설건설이 적극 추진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올해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열어놓을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당이 마음먹고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지방건설혁명, 농촌건설혁명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사업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올해 지방이 변하고 농촌이 진흥하는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조국이 계획하고있는 대상건설은 매우 방대하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건재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조국에서는 자체의 원료원천

과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건재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고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조국에는 건재를 국산화할 수 있는 잠재력과 토대가 충분하다.

우선 건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멘트생산토대가 구축되어있다.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천내리세멘트공장과 승호리세멘트공장을 비롯하여 각지에 꾸려진 세멘트생

산기지들에서 국내의 무진장한 원료와 연료에 의거한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진척되고있다.

조국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시, 군들에 농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전진공급하여 지방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세멘트 못지 않게 마감건재 역시 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건축물의 질이 나라의 문명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라면 마감건재의 질은 건축물

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질 좋은 마감건재를 국산화하여 그 보장을 따라세워야 어떤 대상건설도 계획대로 진척시킬 수 있다.

조국에는 마감건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원료가 풍부하며 마감건재생산기지들의 잠재력이 크다.

전국의 마감건재생산단위들에서는 이미 꾸려진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며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여 국내의 원료로 건재품생산을 전문화, 전통화하

는것과 함께 그 질을 높여 제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천리마타일공장에서는 국내 원료를 리용한 내동성외벽타일을 개발생산한것을 비롯하여 원료와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해나가며 해마다 많은 량의 타일을 생산하고있다.

청진스레트공장에서도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여 단위의 전통제품인 지붕재의 질과 가지수를 높이고있다. 공장에서는 색철관지붕생산설비를 제작

하고 지방원료에 의한 압착기와 생산공정을 꾸려놓았으며 돌숨을 적게 쓰거나 전혀 쓰지 않는 스테트생산설비를 만들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자기 고장의 특색을 살릴수 있는 건재원천을 찾아내어 적극 리용해나가고있는것이다.

평안북도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현대적인 건재종합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지방건설에 이바지하고있다. 세멘트색기와 생산공정과 비소성세멘트, 수



천리마타일공장에서의 타일생산

지관, 중공블록생산공정 등 여러 공정들을 갖춘 기지에서는 각종 건재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신의주갈가공공장에서는 자기 지방에 흔한 갈을 원료로 하는 각종 경량건재생산을 활성화하고있으며 념변군에서는 돌을 가지고 질좋은 돌가공품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닦아 놓았다.

단천시에서도 유용광물이 많이 매장된 지역의 특성을 리용하여 마감건재개발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시에서는 세계적으로 룽색건재원료로 널리 알려진 경소마그네샤로 각종 관류들과 타일 등을 생산하는 단천건재공장을 세우고 기술력량을 따라세워 각종 건재품들을 생산해내고있다.

자기 지방에 흔한 질석으로 보온효과가 높은 보온재를 생산하고있는 삭주군과 자기 지역의 원료에 의거하여 외장재,



지방의 원료, 자재를 리용하여 만든 건재품들의 일부

보도블록, 메움재, 보온재, 비소성타일 등의 생산공정을 확립해놓은 팍산군을 비롯하여 지방군들에서도 지역적특색이 살아나는 건재생산토대를 갖추어 나가고있다.

에너지절약형건재와 자원절약형건재, 기능건재를 비롯한 생태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록색건재개발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최근시기 조국에서는 태양에너지를 리용하는 축열건재품,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는 건재품,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여 만든 장식건재품,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건재품, 종이면석고판과 같이 친

환경적이고 재생가능한 건재품들이 적극 개발리용되고있다.

백두산건축연구원 건재연구소에서는 조국에 무진장한 현무암을 가지고 질좋은 광물섬유보온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용도의 건재품들을 개발하여 친환경적인 록색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에서 성과를 보고있다.

지난해 《건재의 국산화, 재자원화》의 주제로 가상전시회 방식으로 열린 각 도건재전시회-2021에서 비소성의 방법으로 만든 건설자재들과 지방의 원료들을 리용하여 만든 돌건재, 천연칠감, 방수 및 보온재, 경소건재 등 각종 록색건재품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보호에 유익한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건설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국내의 자원과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한 끊임없는 건재생산성과는 나라의 건설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동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상원의 세멘트생산자들



평양과 린접한 황해북도 상원군의 명당로동자구일대에 수역의 질 좋은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다. 이 풍부한 원료자원에 토대하여 대동강의 지류인 상원천기술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창립된 것은 주체73(1984)년 3월이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조국에서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기업소는 지난 기간 세멘트생산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큰 몫을 맡아 수행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두번째 해인 올해에도 상원의 로동계급은 세멘트증산으로 들끓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

정관철에로!》, 《자력갱생》, 《월생산계획 초과완수》 등의 구호들과 표어들, 속도판들이 기업소의 이르는 곳마다에 나붙어 있다. 이것은 이곳 로동계급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기업소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집단적혁신으로 더 많은 세멘트를 증산하기 위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활기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사장 윤성철은 《국가발전

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대건설을 활기차게 내미는 데서 우리 상원로동계급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소에서는 날로 높아지는 세멘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능력확장공사를 단계별로 계획하고 힘있게 내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기업소에서는 주체108(2019)년 세멘트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공정의 하나인 크





링카생산능력확장을 위한 1단계공사를 현행생산을 진행하는 속에서도 중단함이 없이 내밀어 몇달만에 완공하였다.

여기에서 경험과 신심을 얻은 로동계급은 크링카분쇄능력확장을 위한 2단계공사 [주체109(2020). 6-주체110(2021). 11.]를 진행하였다.

2단계공사는 1단계공사에 비해 공사량이 더 아름답고 방대하였다.

하지만 기업소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었고 종업원들모두가 떨쳐나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였다.

일군들은 대중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는데 모를 박고 들끓는 현장에서 생산과 건설지휘를 하였으며 기술자들은 방대한 설비와 공정조립설계들을 현장실정에 맞게 하면서도 합리적이

고 최적화된 새로운 구조물설치안들을 착상도입함으로써 공사기일을 앞당기고 자재를 극력 절약하였다. 그런가 하면 청년기술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롤러분쇄공정전반에 분산형조종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로동자들은 기발한 착상으로 덩지가 크고 기술적요구수준이 높은 수백t에 달하는 제관품, 강철구조물들을 손색없이 제작하였다.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사는 1년 남짓한 기간에 결속되었다.

능력확장공사가 결속됨으로써 기업소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능력확장공사를 통하여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앞날을 내다

보며 자기 힘을 믿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갈 때 혁신적성과를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에 의거한다면 아무리 아름답 과제도 능히 수행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더욱 가다듬게 되었다.

지금 기업소에서는 세멘트를 실은 렬차들과 자동차들을 주요건설장들로 련이어 떠나보내고있다.

당이 제시한 세멘트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는 언제나 상원의 로동계급이 서있을것이다. 이것이 이곳 로동계급이 지닌 한결같은 마음이고 의지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리병국



우리의 태양찬가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



(전호에서 계속)

세상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조국처럼 태양복을 받아안은 나라는 없습니다. 오늘의 국제사회현실을 통하여 우리는 똑똑히 보고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이 유린당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여지없이 짓밟히는것은 결코 19세기나 20세기에만 있는 지나간 력사의 폐지가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줄 올바른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다면 그 치욕과 오욕의 력사가 되풀이될수 있다는것은 만고의 진리로 되고있습니다. 어느 하루도 류혈적인 분쟁과 침탈, 재난과 불우한 운명을 통탄하는 곡성이 그칠새없는 오늘의 지구상에서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그 어떤 모진 시련과 광풍도 주저없이 맞받아 과감히 뚫고헤치며 자기 인민의 운명과 번

영할 민족의 래일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불굴의 군상은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있으며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누리는 태양복, 수령복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입니다.

백두산 즐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

백두산은 또 한분의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올렸습니 다. 조국의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어버이주석님 그대로이신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더친 또 하나의 우리 민족 태양찬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여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만년초석을 마련해 주신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사에 기록된 고난의 행군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시련에 찬 로정이였다면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총포성없는 결사전이였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으리》라는 노래의 가사에도 있는것처럼 1990년대중엽 조국앞에는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적대세력들이 《3. 3. 3 붕괴설》이라는 허황한 나팔까지 불어대고 무차별적인 제재압박의 총공세를 들이대며 때를 지어 사면팔방으로 달려드는가 하면 엄청난 자연의 재해까지 겹쳐 말그대로 최악의 역경에 처한것이 당시 조국의 실정였습니다. 노예의 삶을 사느냐 자주적인 민으로 사느냐 하는 력사의 갈림길에서 붉은기 높이 추켜드시고 그 준엄한 난국의 진두에서 만단을 뚫고나가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시였습니다. 한몸이 그대로 타오르는 불길이 되시여 온녓과 헌신을 다 바쳐가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노래에도 있듯이 우리 장군님께서 지시 않았다면 조선은 숨졌을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격난속에서도 끄떡없이 위대한 주석님의 위업을 견결히 고수하시며 사회주의조

국의 만년토대, 밝은 래일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우리 장군님 그 얼마나 불철주야의 헌신의 길을 걸고걸으시였습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최악의 역경을 우리 장군님 아니시였다면 그 누가 이겨낼수 있었겠습니까.

정녕 력사에는 우리 장군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그런 령도자는 없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그런 인민의 지도자, 절세의 애국자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양의 빛과 열로 감싸안아 싹틔워주신 만복의 씨앗들이 알찬 열매로 주렁지는 조국의 벽찬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걸출하신분을 수령으로, 령도자로 모시였는가를 더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더불어 불멸의 태양찬가로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지고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은 꺼지지 않은 태양의 빛발로 더욱더 무궁무진한 발전의 길을 걷고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조국의 존엄과 국력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찬탄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추호의 흔들림없이 견결히 수호하시며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품어주고계십니다.

백두산이 떠올린 또 한분의

찬란한 태양을 모시여 우리 조국은 세계에 더욱더 위대한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탁월한 령도자를 모실 때 령도는 비록 크지 않아도 존엄높은 강국, 위대한 민족으로 그 이름높이 떨칠수 있다는 진리가 우리들모두의 심장을 세차게 고동치게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시대와 력사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또 한분의 사상리론의 거장을 보았습니다.

백두의 슬기와 담력으로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도발과 제재광풍을 여지없이 꺾어버리시며 강국의 새 력사를 당당히 펼쳐가시는 또 한분의 강철의 령장을 보았습니다.

인민의 모습에 그들이 질세라 민어주고 품어주시며 보람찬 삶을 누리게도록 온갖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레는 소리높이 웨칩니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으로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수 없는 위대한 강국, 자주와 존엄의 강국으로 만방에 그 이름떨쳐지고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년대기, 자주와 존엄으로 위용떨치는 민족의 위상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이 계시였기에 마련될수 있었으며 태양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였기에 더욱더 빛을 뿌리고있는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태양찬가!

정녕 그것은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더뜨리는 겨레모두의 심

장의 목소리입니다.

조선의 태양찬가!

그것은 우리 조국의 영원한 애국가이며 천세만세 울려갈 조선의 메아리입니다.

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주체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이 만리대공으로 날아오르고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떨쳐지고있는 4월의 하늘가에 《**김정은**장군찬가》가 장엄히 울려퍼집니다.

장군은 강대한 조선의 기상
장군은 높뛰는 조선의 심장
주체의 대업 이끌어

영광만리 떨친다
그 이름도 위대한 **김정은**장군

장군은 천만의 슬기론 지혜
장군은 영원한 우리의 행복
사랑의 역센 힘으로

제일락원 가꾼다
그 이름도 위대한 **김정은**장군

장군은 눈부신 세기의 태양
장군은 찬란한 승리의 기치
백두산대국 삼천리

밝은 미래 펼친다
그 이름도 위대한 **김정은**장군

항일의 친구들을 감사하며 우리는 력사의 어제를 추억하고 래일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보면서 태양찬가를 더 높이 부르고 있습니다.

백두의 아득한 밀림도 태양찬가의 메아리에 감격하여 끝없이, 끝없이 설레이는것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태양찬가는 력사와 시대를 넘어, 세대와 세기를 이어 영원무궁토록 울려갈것입니다.

주체111(2022)년 4월 15일
중국 연길에서

사람에 대한 새로운 견해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견해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속에서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라는데 대하여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사회적관계는 사회생활과정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사이의 관계이다. 사람들이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한다는것은 곧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한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하는것은 사람의 고유한 생존방식이다. 사회적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적집단밖에서 사는 사람은 사회적인간이라고 할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의 생명유기체에 불과하다.

사회적존재라는데 다른 생물학적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주체철학은 이로부터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졌다는것을 밝혔다.

주체철학에서 논의하는 사람은 고도로 발전된 유기체일뿐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생명물질도 가지지 못하는 자주

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살며 활동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유기체가 아무리 발전되었다고 해도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수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발전된 유기체 그자체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낳는것은 아니며 사람의 생물학적특성 그자체가 사회적특성을 부여하는것은 아니다.

사람의 사회적속성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발생과 발전과정 다시말하여 사람의 사회적활동과 사회적관계의 력사적발전과정속에서만 형성발전될수 있다. 사회의 발전력사가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력사라고 하는것은 곧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력사적으로 형성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속성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사회적존재이기때문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된다는것은 개별적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형성발전과정을 보아도 명백하다.

개인이 사회적존재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가르는 기준은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관계속에

서 살게 되며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니고 그것을 높여나가게 된다.

만일 개별적사람이 어떤 우연적요인으로 태어나서부터 사회와 동떨어져 살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사회적존재로 되지 못하며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도 지니지 못한다. 어느한 나라에서 동물의 무리속에서 생활하다가 발견된 아이에게서 인간의 사회적속성이라고는 그 어떤 맹아적형태로도 찾아볼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의 한 실례이다.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 일정한 정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녔던 사람이라고 해도 사회적집단과 사회적관계를 떠나면 그 수준이 더 높아질수 없다.

물론 극히 드물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생활을 하는 존재로 되지 못하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수도 없고 높일수도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사람은 오직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속에서 생활할 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으며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끊임

2만 1번째 소년단대표

지금으로부터 10년전 6월 평양에서는 온 나라가 들썩하게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는 전국의 모범적인 소년단원 2만 명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그런데 대회장으로는 소년단대표가 아닌 김평산이라는 학생도 달려왔다.

그는 부모나 선생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혼자서 평안북도에서부터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수백리길을 왔던것이다. 비록 대표로 선출되지 못하였지만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진행되는 소년단원들의 경축행사에 참가하고싶은 열망이 남달리 강렬하였던것이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그 학생의 소원을 풀어주자고 하시며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그는 2만 1번째 대표로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경축행사의 나날은 참으로 꿈같이 흘러갔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대표중도 수여받았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서 그는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축하연설을 직접 받아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학생소년들은 공부도 잘할뿐 아니라 사회주의도덕을 잘 지키고 언제나 조직과 집단, 동무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과 웃사람들을 존경하며 체육도 잘하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모범소년단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평산이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였다.

그는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온 때부터 모든 면에서 몰라보게 달라졌다. 평산이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남먼저 깨끗한 마음을 바치였으며 학습과 조직생활에서도 그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제날의 철부지소년이었던 평산이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총을 잡은 병사가 되었다. 조국보위에 청춘을 바치는 것, 바로 여기에 자기가 받아안은 조국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렇게 2만 1번째 대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마음을 심고 자라우며 대바르게 성장하였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2만 1번째 소년단대표의 성장의 모습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속에 안긴 새세대들의 앞날이 얼마나 밝고 창창한가를 알수 있게 하고있다.

* * *

없이 높아진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어느 사회보다 더욱더 높아지게 되며 사회주

의사회는 더 빨리 발전하게 된다.

주체철학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과 사회의 개조발전의 합

법칙성을 독창적으로 해명하고 사람,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본사기자 김슬기

끝이 없는 미래사랑으로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조국에서는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언제나 울려 퍼지고 있다.

《세상에 부림없어라!》

여기에는 혁명의 본질도 목적도 후대들의 성장과 행복에서 찾으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미래관이 어리여 있다.

조선로동당의 제일중대사는 후대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것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지론이고 신념이다. 조국의 미래와 관련한 일이라면 자그마한 문제라도 천만가지 국사중에서 제일국사로 내세우시며 시간과 품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이시다.

주체101(2012)년 5월 조국땅에는 조선소년단 창립절을 조선로동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전례없는 성대한 축전으로 경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메산골과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소학교, 중학교들에서 경축행사대

표들이 선출되어 평양에 초청되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6월 6일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정을 담아 불러주신 그이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이처럼 훌륭한 조선소년단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수백만 소년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자애로운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조국강산은 환희와 걱정애 넘쳐있었다.

그이께서는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음악회도 관람하시고 모범소년단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어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

시었다.

이 대회는 그이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이후 조국에서 진행한 첫 대회합이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장식하며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와 제8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저 멀리 백두산기슭의 소년궁전으로부터 이 땅 그 어디에나 그이의 미래사랑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지 않은 곳이 없다.

몸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훌륭히 개선할것을 발기하신 그 나날도 결코 풍족한 시기가 아니였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모든것이 부족했고 정세도 침체했던 시기였지만 그이께서는 주체103(2014)년 한해에만도 4차례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었다. 개선공사가 한창일 때에도 오시어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준공을 앞두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최전연으로 가시는 길에 또다시 들

리신 그이이시다.

몸소 준공식에도 참석하시어 행복넘친 아이들과 온 하루를 함께 보내시고도 부족점이 있을세라 두달후에 또 찾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하시며 진함없이 기울이신 그이의 열과 정을 조국인민은 세월이 가도 잊지 못할것이다.

웅장화려하게 개선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였던 그날에도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곤난한 시기에 굳건히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먼 후날에 가서 사회주의승리의 함성으로 높이 울려 퍼질것이라고, 자신께서는 그에 대하여 확신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고 새 교복과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



학생소년들을 위한 파외교양기지들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도 안겨주시며 새세대들이 한점의 그늘없이 자라도록 마음쓰시는 그이의 사랑속에 학생소년들은 아름다운 꿈을 키우고 희망의 나라를 펼쳐가는 행복동으로 자라나고있다.

그이의 사랑속에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학생

소년들은 조국의 만년대계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명랑하고 대바르고 씩씩하게 성장하고있다.

미래를 확신하는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없을 것이다. 혹독한 격난과 시련의 언덕이 앞을 막아도

조국인민들이 신심드높이 사회주의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미래사랑이 있기때문이다.

미래사랑의 날과 날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의 이야기들은 후대들의 밝은

모습과 더불어, 조국의 찬란한 래일과 더불어 끝없이 전해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김 평



나라의 역군으로 준비해가는 학생소년들





어린이들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에서

어머니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를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에서는 하나를 주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 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양육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습니다.

지난 2월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새롭게 채택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에는 이 법의 사명과 육아사업의 기본원칙,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 등이 담겨져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주체65(1976)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

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부족법으로서 어린이들에 대한 양육조건보장이 구체화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자면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품을 정상적으로 잘 먹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마다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로 하여 나라의 경제형편은 의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주요의정으로 토의되었습니다.

전원회의참가자들과 온 나라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성장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나라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어린이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젓제품을 공급하는것이 당의 정책으로 수립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당과 국가의 최종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힘겨울

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전원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인차 전국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식탁마다에는 맛있고 영양가높은 젓제품이 올랐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직

알지 못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젓제품을 먹으면서 활짝 웃고 있을 때 온 나라 부모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은 마음속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육아법은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당의 육아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을뿐 아니라 국가가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

든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는것을 육아사업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이제 태어나게 될 아이들,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 20년, 30년후에는 공화국의 국력을 떨쳐가는 기동감이 될것이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육아법》은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구현하여 나라의 귀중한 보배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더 밝고 명랑하게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에서 더 훌륭히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보건성 국장 리경심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들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

- 농업위원회 부원 심영호와 본사기자와의 문답 -



기자: 올해 농업부문앞에 제시된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농업생산의 과학화열풍을 고조시키는것이 아닌가.

심영호: 그렇다.

농업생산의 과학화이자 다수확이다. 농장들에서 하늘이 《기사장》이라고 하던 때는 영영 지나갔다. 지금 그 어느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들에 가보아도 과학기술을 식량증산의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모든 영농과정들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보다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주로 경험주의에 매달리던 농사방법에서 벗어나 과학농사

에 의거하려는 농장원대중의 관심과 열의가 나날이 커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에 맞게 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에게 선진과학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확고히 실행시켜나가고있다. 이 과정에 주요영농과정별기술전습회와 보여주기사업, 다수확경험교환 등 과학기술보급사업이 농장일군들과 작업반기술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던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 농장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지금 각지의 농장원들속에서 선진농업과학기술을 물과 공기처럼 귀중히 여기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농사를 짓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고있다.

선진적인 영농방법과 농업과학기술지식들이 농민들자신의 사활적인 밑천으로, 농사실천으로 더욱 밀착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를 통하여 과학농사에 대한 농장원들의 지향과 열의를 더한층 고조시키고있다.

기자: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에 대하여 말해줄수 있는가.

심영호: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는 농업위원회와 과학연구기관,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장들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하고 영농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실시간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의대책하는 정보기술체계이다. 화상회의, 원격강의 및 문답봉사체계와 홈페이지를 통한 기술자료봉사체계, 이동통신망에 의한 질문접수 및 자료봉사체계로 구성된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는 선진과학기술이 물흐르듯 아래단위에 끊임없이 보급되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영농작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 협의대책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대단히 편리하다는것이다.

현재 각지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체계를 리용하여 새 기술을 보급받는것은 물론 영농실천에서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당봉사를 제때에 받고있다.

실례로 농업발전의 5대요소의 하나인 지력개선만 보더라도 위원회에서는 지력을 제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문답봉사를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지난 시기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거둔 다수확단위, 다수확자들이 지력을 높이는데서 창조한 경험들도 화상 및 동영상자료까지 안받침하여 실감있게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 좋은 경험들이 일반화되어 전국각지의 수많은 협동농장들이 지력개선에서 눈에 띄우는 진일보를 이룩하였다.

이외에도 재해성이상기후속에서도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는 선진영농방법을 비롯하여 영농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우수한 경험들이 보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는 농업생산단위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기자: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의 실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심영호: 위원회에서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에서 중요한 화상회의, 원격강의, 실시간문답 등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프로그램기술을 더욱 완성하는 한편 자료기지를 풍부히 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농업연구원, 인민대학습당, 과학기술전당 등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국내외과학농사기술자료, 소논문, 다수확경험들과 다매체편집물들을 영농과정별로, 작물별로 목록화하였다.

한편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

법으로 실속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화상회의와 영농기술강의체계에서는 농작물생육에보자료통보와 함께 다음번 영농과정수행과정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에 대한 강의, 중앙과 지방의 유능한 농업부문 과학자, 대학교원, 기술자들과의 문답, 현장에서 창조된 우수한 영농기술경험발표를 화상 및 동영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기술자료봉사를 실시간 진행하기 위한 사업도 선행시켜 가입자들이 농업위원회홈페이지에 개설된 영농기술문답페이지에 실린 물음과 대답기사들을 열람하면서 자기 단위에서 류사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을 얻도록 많은 품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해당 단위에서 요청하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가지 종합적인 기술자료들이 신속정확히 제공되는 집중자료봉사와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긴급강의의 질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앞으로 영농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는데서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는 큰 역할을 할것이다.

기자: 감사하다.

* * *



한 청년이 대지를 활보하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래양상을 찾은 리명범

지난 1월 평양시교외의 순안구역인민병원에서는 사경에 처했던 한 청년을 일으켜세워 대지를 활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청년의 이름은 리명범, 올해 23살인 그는 지난해 군사복무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하여 영예군인이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구역인민병원에 입원하여 검병검진을 다시 받았다.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받은 진단은 우측대퇴다발성골수염으로서 10cm 이상의 깊은 루공이 생겨 피저로 넘어갈수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39℃이상

의 지속되는 고열은 환자를 심한 고통속에 몰아넣게 하였다. 인차 병원에서는 환자를 일

으켜세우기 위한 의사협의회가 구역의 책임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적지 않은 의사들이 지금껏 다리를 자르지 않고 유지한것만 해도 기적이라며 이제는 어쩔수 없다는 결론이 99%라고 함으로써 환자치료사업에 그림자를 던져주었다.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던 구역의 책임일군이 일어났다.

《99%? 그럼 1%의 완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일군은 다시 말을 이었다. 《의사선생, 그 가능성에 우리모두의 정성을 합치면 안될까요? 그는 나라를 지키는 군사복무를 하다가 그렇게 된 20대 초엽의 청년입니다. 필요하다면 내 다리라도 내놓겠소.》



건강한 몸으로 병원문을 나서며

자기의 두다리를 툭툭 두드리며 절절히 말하는, 사경에 처한 환자를 놓고 친부모처럼 애타하는 책임일군의 진정앞에서 협의회참가자들은 자기들에게 바로 환자에 대한 그 진정, 그 정성이 부족하였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날 자정이 넘도록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분담안이 세워졌으며 그 즉시에 치료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는 수술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위중했다.

질은 골수염으로 여러 뼈조각이 물러났았고 또 그것들은 불순물이 되어 염증을 다발적으로 더욱 확대하고있었다.

의료집단은 염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환자의 육체적 부담을 적게 하는 수술방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런가 하면 골수염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지방의 병원과 중앙병원

들과의 연계밑에 구체적인 상담도 진행하였다.

집중적인 치료사업이 진행된 때로부터 20여일만에 첫 수술이 진행되었지만 환자의 상태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다.

또 다른 치료방법들인 수법치료, 약물치료 등이 탐구되어 적용되었다.

그렇게 한달, 두달이 지나갔고 여러 차례의 수술이 거듭되었다.

자식의 곁에서 며칠밤을 새우던 환자의 어머니도 눈을 붙일 때가 있었지만 의료일군들의 긴장한 치료사업은 지칠줄 몰랐다.

구역의 일군들은 매일과 같이 환자상태를 알아보았고 그들의 안해들은 귀한 약재와 영양식품을 가지고 찾아오곤 하였다. 구역안의 주민들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환자치료에 합심하였다.

환자를 위하는 이런 마음들

은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났고 그나날 환자치료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마침내 청년에게는 지팡이없이 대지에 첫걸음을 내디디는 날이 오고야말았다.

두걸음, 세걸음...

밝은 웃음을 안고 대지를 걷는 청년의 모습은 온 구역안의 일군들과 주민들의 눈시울을 적시였다.

이날 청년은 《구역안의 의사선생님들과 일군들, 주민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저를 일으켜세웠습니다. 저는 이런 고마운 사람들속에서 다시 대지를 활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들속에서 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장애자가 아닙니다.》라고 감격하여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상 식

로화를 지연시키는 탁구

탁구는 인간의 지능을 높여주는 체육종목으로서 사 람들을 젊게 해준다고 한다. 하게 한다고 한다.

탁구가 인간을 젊어지게 하는것은 눈의 부단한 움직임때문이라고 한다. 애호가들은 한결 젊어보이며 건강미가 넘치는것이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탁구는 뇌전체의 피흐름을 활발

* * *

초음파응용분야의 실력가

주체101(2012)년에 발족된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공학부 음향공학연구실은 조국의 초음파응용 분야에서 공인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연구실에서 설계제작되고있는 초음파관련기술 제품들은 첨단기술제품으로 인정받고있다.

이것은 연구실의 첫 실장이었으며 현재 물리공학부 학부장인 박사 부교수 리경호의 공로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실장으로 사업하기 전에 그는 물리공학부 리문물리학강좌의 교원으로서 전공은 레이자공학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초음파분야는 미지의 세계였다. 더우기 초음파기술제품의 연구개발을 주도해야 하는 실장직책은 그에게 중압감을 주었다.

그러나 국내의 여러 단위들이 초음파관련기술 제품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결코 방관할수가 없었다.

실장으로 임명된 날 밤 리경호박사는 부모님들의 당부를 생각하였다.

일본땅에서 갖은 민족적멸시를 받으며 토목공사장에서 덧없는 청춘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아버지, 그러했던 아버지는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소망하던 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적으로 손꼽히는 기계기술자로 될수 있었다. 어머니의 진정한 삶도

역시 귀국후에야 시작될수 있었다. 그 고마움을 온몸으로 느낀 부모님들이었기에 조국의 사랑과 배려에 과학기술성공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늘 아들에게 이야기하곤 하였다.

부모님들의 당부는 초음파기술제품들을 조국의 실정에 맞게 연구개발해내려는 그의 결심이 굳어지게 하였다.

새로운 학문에 도전한 그의 탐구가 시작되었다. 초음파공학과 관련한 여러 학문들을 집중적으로 독파하고 응용도 해보면서 그는 이 분야에 대한 안목을 넓혀나가는 한편 발전된 나라들의 성과들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구상을 무르익혀나갔다.

음향 및 초음파의 학술적기초를 공고히 다진 그는 《초음파에네르기응용》이라는 도서를 집필한데 이어 1년만에 자동차, 항공, 선박부분품들의 세척과 정밀기계부분품세척, 태양전지전도성유리 세척 등에 절실히 필요한 초음파세척기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는 연구를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진동계모의 해석방법과 정합문제를 비롯한 초음파응용의 관련기술들을 장악하고 첫 제품으로 초음파세척기를 내놓았다.

그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줄달음쳤다.

그 과정에 임의의 부하에서도 안정하게 동작할수 있는 주파수자동추종대출력초음파세척기전원단과 현장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초음파세척과 초음파처리를 진행할수 있는 투입형초음파진동판을 연구개발하였다. 특히 그는 대출력초음파분산유화장치를 비롯한 3종에 4대의 첨단설비들의 연구개발에서도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김성철연구사는 그때를 회고하며 《우리는 그때 제품광고사진 한장을 보고 연구에 달라붙었다. 한번 만들어본적도 없고 초음파기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복잡한 설비였지만 리경호박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사진에 기초하여 가설을 세운 리경호박사는 문헌연구와 집체적협의를 심화시키면서 설비의 동작특성과 기술공학적원리들을 하나하나 해명해나갔으며 마침내는 일부 나라들이 거액의 가격을 매겨놓고있던 초음파분산유화장치를 개발하여 기능성화장품의 질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후 리경호박사와 연구집단은 초음파로 안전하게 종양을 치료할수 있는 침단의료설비인 강력집속초음파종양치료기의 연구개발에서도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그들이 연구개발한 초음파제품들은 전국과학기술추진과 전국과학기술발표회들에서 여러번 1등을 쟁취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교원, 실장, 학부장으로 사업하면서 리경호박



박사 부교수 리경호

사는 《음향공학특강》을 비롯한 여러종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였으며 《국제생물의학공학잡지》 등 국내외의 이름있는 과학기술잡지에 30여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학생들의 실력제고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응용물리학학위논문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고있는 그는 수십명의 박사과 석사들도 양성하였다.

언제인가 일본에서 살고있는 그의 동생 리미귀녀성은 《... 오빠가 덩실하게 큰 집을 무상으로 받고 이름난 대학의 한개 학부를 이끄는 큰 선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말로 가슴이 뿌듯해 집니다. 조국의 품에서 오빠가 큰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의 야심의 바탕에는 애국심이 깔려있다.

리경호박사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나에게는 재능을 꽃피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조국을 과학기술로 받드는 길에 나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함께 있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새로 연구한 초음파의료설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있는 리경호



박내딸의 작품에 대한 심사는 온 가족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일본의 죄악, 도자기 약탈

과거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중에는 조선민족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의 산물인 도자기를 대대적으로 약탈해간 범죄도 있다.

조선민족이 오랜 역사적과정에 창조한 도자기는 색깔이 뛰어나게 아름다우며 문양과 모양이 세련되었을뿐 아니라 제조수법 또한 독특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에 눈독을 들인 일본침략자들은 오래전부터 해적떼들을 통한 기습약탈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저들의 탐욕을 충족시킬수 없었다.

일본침략자들이 고려자기를

비롯한 조선의 자기를 대량적으로 약탈하기 시작한것은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때 부터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에 의한 도자기의 대량적인 약탈, 도자기기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랍치, 가마터의 파괴가 얼마나 심하였는가 하는것은 일본인들자체가 이 전쟁을 《자기전쟁》, 《도기전쟁》이라고 평한 사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일제의 도자기약탈만행은 조선군사적으로 강점한 이후 극도에 이르렀다.

조선침략의 원흉이며 《조선통감부》의 첫 통감이었던 이또

히로부미만 놓고보아도 도자기약탈에 광분한 도적의 괴수였다. 이자는 고려자기라고 보이는것은 닥치는대로 긁어갔다.

이또는 약탈자들이 귀중한 고려자기들을 자기에겐 심겨바칠 때마다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놈들을 도적질에로 계속 내몰았다. 이렇게 도적질한 많은 고려자기들을 왜왕에게 바치였다고 한다.

초대조선《총독》의 탈을 쓰고 기여든 데라우찌 역시 《고적 및 유물보존교칙》을 추가발표하고 《총독부》의 권력을 발동하여 민족문화유산을 대량적으로 마구 약탈하였다. 데라우찌는 야마구찌현에 《조선관》

이라는것을 세워놓고 조선에서 약탈해간 문화재 2 000여점을 소장하였다. 그가운데는 무덤에서 도굴한 고려자기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있었다.

옷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침략과 약탈의 원흉들을 본따서 그 하수인들속에서도 도자기약탈이 공공연히 감행되었다.

오사카의 나카야마상회는 도굴한 고려자기밀매의 주역을 담당한 업체로서 직접 개성에 기여들어 도굴자들로부터 고려자기들을 넘겨받아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까지 팔아먹었다.

일제는 《골동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미명하에 비법적으로 도굴약탈한 고려자기에 대한 경매를 공공연히

벌려놓았을뿐 아니라 이를 적극 비호조장하였다.

고려자기만이 아니라 청화, 진사 등으로 이름높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자기들도 일제에 의해 일본각지로 대량 흘러들어갔다.

일본의 지방도시에 불과한 오사카의 오사카시립동양도자기미술관에는 근 800점의 조선도자기들이 전시되어있다. 지방도시의 한개 미술관에 이렇듯 많은 도자기유물들이 있을진대 일본의 전국각지에 널려있는 조선의 도자기유물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일제는 이렇게 훔쳐간 조선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일본의 《국보》로 등록하였으며 박물관까지

관까지 차려놓고 뼈젓이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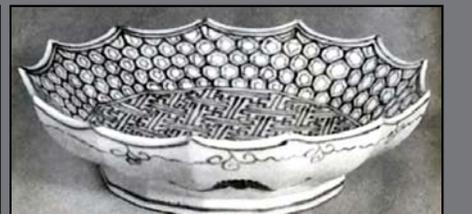
이에 대해 일본사람들까지도 《일본국보라고 세계에 자랑하고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미를 찬양하고있는 작품의 거의 모두가 대체 누구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인가? 그것은 조선민족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 아닌가. 이것은 력사가들도 립증하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국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고백하였다.

참으로 일제는 조선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고려자기를 비롯한 력사유적유물들을 마구 약탈해간 인류문명의 극악한 파괴자이며 범죄자이다.

본사기자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자기공들이 살던 아리다강류역과 그들이 리용하던 가마터



일제가 약탈하여 도교국립박물관에 진렬한 조선도자기들의 일부

현재 도교국립박물관에는 100여점의 고려자기가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많은 고려자기들은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와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가 가지고있던것과 일본의 어용학자들이 《기증》한것, 골동상인들로부터 구입한것이다.

현재 일본각지의 박물관, 미술관들에 전시된 조선도자기들은 공개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오사카 안다꾸 코렉슨이 가지고있는 수천점의 도자기들은 대다수가 조선도자기들이어서 마치 조선도자기진렬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각계층 민간인들이 소유하고있는 조선도자기들은 그 정확한 수량조사 헤아릴수 없다.

활쏘기

얼마전 청춘거리에 자리잡은 메아리사격관을 찾았던 우리는 그곳에서 낯익은 영화문학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장편만화영화 《고주몽》의 영화문학을 쓴 김춘원작가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이곳에서 만나게 되니 상봉의 기쁨은 컸습니다.

《기자선생, 나는 이 활쏘기장의 단골손님입니다. 저는 가끔 착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여기에 와서 활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치 만화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것같은 자감상태에 빠지곤 하지요. 이렇게 화살을 날리느라면 저의 머리에서는 막혔던 영화의 이야기줄거리가 연줄연줄 이어져나옵니다. 하하하...》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활쏘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봉사원에게서 활과 화살을 받

아들었습니다.

봉사원은 아직 활쏘기솜씨가 서툰 우리에게 다가가 활쏘기요리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봉사원의 도움으로 점수가 차츰 높아지자 활쏘기에 더욱 성수가 났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나니 우리는 오래전부터 인민의 사랑을 받아온 민족체육종목의 하나인 활쏘기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활은 신석기시대에 벌써 기본사냥무기로 널리 쓰이었습니다.

동방의 강국으로 솟아올랐던 고구려(B.C. 277년-A.D. 668년)에서는 활쏘기가 무술의 첫째라고 할 정도로 대중속에 널리 보급되어있으며 수준 또한 높았습니다.

조선력사에서 첫 봉건국가로 되는 고구려의

시조왕인 고주몽은 어릴 때부터 훌륭한 무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7살때부터 활을 쏘았는데 그후 날아가는 새도 한 화살에 두마리를 쏘떨구었고 백보밖에 걸어놓은 자그마한 가락지도 한번에 명중시켰습니다. 주몽이라는 이름도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애국심이 높고 용감한 우리 민족은 활쏘기를 나라의 방위와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고구려사람들은 자식들에게 활쏘기를 배워주었으며 능숙한 활쏘기명수들은 자기의 묘기를 후대들에게 넘겨주는것을 응당한 일로 여겼습니다.

고구려사람들의 뛰어난 활쏘기방법은 그후 발해-후기신라시기를 거쳐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도 면면히 계승되었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활을 만드는 재료와 사격대상에 따라 목궁, 각궁, 철궁, 정량궁, 례궁, 철태궁, 고궁 등 7가지 종류의 활이 있었습니다.

화살은 대체로 가는 대나무를 다듬어서 화살의 줄기를 만들고 그앞에 쇠로 만든 축을, 다른쪽에는 새의 깃털을 달고 오늬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오늬는 화살의 뒤끝을 활시위에 끼우도록 여는 화살의 꼬리부분을 말합니다.

활쏘기과녁에는 네모난형과 둥근형이 있었는데 말타고 활을 쏠 때에는 둥근 과녁이 리용되었습니다.

경기형식의 활쏘기는 대체로 서서 활쏘기, 달리면서 활쏘기, 말타고 활쏘기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서 활쏘기는 말그대로 선자리에서 과녁을 겨냥하여 쏘는것이었는데 여기에는 멀리쏘기와 과녁맞히기가 있었습니다.

달리면서 활쏘기는 달려가면서 일정한 거리에 세운 과녁을 활로 쏘는것이었습니다.

말타고 활쏘기는 고정과녁쏘기와 류동과녁쏘기로 진행되었는데 류동과녁활쏘기는 활쏘기경기에서 가장 이채를 띠었습니다.

활은 중세시기 위력한 전투용 및 사냥용무기로 리용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활쏘기풍습을 보여주는 옛 그림

중세시기 인민들은 활쏘기를 잘 익히고 부지런히 연마함으로써 나라방위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시기 무관이었다던 황진(?-1593년)을 비롯하여 명궁들이 셀수 없을만큼 많았는데 그들은 왜적을 쳐부시는 싸움에서 무훈을 떨치었다고 합니다.

실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었던 활쏘기는 사회에 상무기풍을 조장시키고 인민들과 군사들을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켰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기여를 한것으로 하여 그 의의는 자못 큰것이었습니다.

활쏘기가 세계적범위에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것은 18세기말-19세기초라고 합니다. 이 시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쏘기단체가 무어지고 나라들간에 경기도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현대과학기술에 토대하여 활과 화살의 재료, 조준기재, 과녁, 경기규정 등이 새롭게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활쏘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량만적인 모습을 보며 메아리사격관을 나섰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메아리사격관의 실내활쏘기장에서 주체108(2019)년 촬영



민족의 시조국가 고조선 (1)

고조선은 우리 나라 역대 국가들가운데서 처음으로 세워진 조선민족의 시조국가이다.

고조선은 B.C. 30세기초에 건국하여 B.C. 108년까지 평양을 수도로 하여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에서 번성하였던 동방의 강국이였다.

고조선을 세운 시조왕은 단군이다.

먼 옛날 환인이라는 하늘신이 아들 환웅을 지상에 내려보냈는데 그가 곰녀자와 관계하여 단군을 낳았고 단군이 평양을 도읍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는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6 000년전인 B.C. 4000년기 후반기 조선반도와 중국동북지방, 로씨야의 연해변강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살던 조선옛류형사람이라고 하는 선조들속에서 가장 발전하였던것은 하늘신을 조상으로 섬기던 박달족이였다.

이 박달족 추장의 아들이었던 단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추장이 된 후 뜻을 같이한 씨족의 귀족들과 함께 종래의 원시적인 정치기구들을 특권층들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기관으로 전환시켜 B.C. 30세기초에 조선이라는 첫 국가를 세웠다.

주체82(1993)년에 예로부터 전해오던 단군릉을 발굴하여보니 놀랍게도 5 011년전의 사람뼈가 나왔는데 이로써 단군이 반만년전에 고조선국가를 세운 우리 나라의 건국시조, 우리 민족의 원시조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단군은 국가의 최고통치자로서 대왕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었으며 호가, 마가, 우가, 웅가, 로가, 학가, 응가 등 단군8가를 비롯한 중앙통치기구를 정연히 꾸리고 지방에는 고을-읍락을

두었다.

고조선의 역사는 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시기로 구분한다.

성립초기 조선중서북지역에 머물러있던 고조선(전조선)의 령역은 주변의 소국통합과정에 B.C. 3000년기중엽이후부터 조선반도를 벗어나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던 전조선은 B.C. 15세기중엽에 와서 노예를 비롯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부여, 구려, 진국 등 여러 제후국들의 세력다툼으로 급격히 약화되어 후조선으로 교체되게 되었다.

후조선은 전조선왕조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로서 초기의 혼란된 정국을 수습하고 인차 통치제도를 강화해나갔다.

후조선초기에 제정된 고조선의 성문법인 《범금8조》를 보면 당시의 법률제도의 발전상과 함께 정치제도가 공고화되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흥미있는것은 지금은 비록 3개의 조항만이 남아 전해지고있지만 《범금8조》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시에 죽인다는 형법적요소뿐 아니라 죄를 지은자가 죄를 벗기 위해서 곡물이나 돈으로서 보상한다는것과 같은 민법적요소도 매우 다분히 반영된 성문법이였다는것이다.

후조선에서는 B.C. 2000년기후반기에 들어서서 제철기술이 발명되고 그후부터는 강철제도구, 무기들이 만들어져 널리 쓰이면서 농업과 수공업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

이렇게 40여대에 걸쳐 근 1 300년간 존속해오던 후조선은 B.C. 194년 후국왕이었던 만에 의해 만조선으로 교체되었다.

만조선은 고조선의 세번째 왕조이다.

새로 선 만왕조의 집권층은 왕권의 정치, 경제, 군사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음악가 려옥과 고대가요 《공후인》

려옥은 고조선후반기의 녀류 음악가이다.

현악기인 공후를 잘 탔으며 유명한 고대서정가요 《공후인》을 창작하였다.

그의 생애와 창작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있다.

조선의 《해동역사》, 《오산실림》, 《열하일기》의 《동란섭필》 그리고 중국의 《사기》, 《고금주》, 《고요언》 등 옛 문헌들에는 《공후인》의 창작경위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하고있다.

려옥의 남편 팽리자고가 어느날 새벽에 노를 저어 나무를 건느고있을 때 머리가 흰 실성한듯한 사람이 미친듯이 사뭇치는 강물에 뛰어들어 강을 건느기 시작하였다. 그의 안해가

쫓아와 만류하였다. 그는 듣지 않고 계속 강을 건너가다가 마침내 사나운 물결에 휩싸여 죽고말았다. 그의 안해는 공후를 부둥켜안고 타면서 슬프고 애처로운 《공무도하가》를 지어 부른 후 자기도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말았다. 이 광경을 목격한 팽리자고가 집으로 돌아와 안해인 려옥에게 말하였더니 려옥 역시 그를 붙잡히 여기며 곧 공후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였다. 려옥은 이 노래를 이웃의 려용에게 전하였는데 제목을 《공후인》이라 하였다.

문헌기록을 통하여 려옥이 고조선사회의 가난한 배사공의 안해로서 재능있는 녀류음악가라는것을 알 수 있다.

《공후인》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님아 강을 건느시 마소
그에 님은 건느시네
강물에 빠져 죽으시니
어저 님을 어이하리

가요 《공후인》은 그후 점차 국내는 물론 이웃나라에까지 전파되어갔으며 후세에까지 전해오고있다.

려옥은 가요창작가이며 동시에 공후를 잘 타는 기악명수이기도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이때 그가 타던 공후는 13현으로 된 악기였다. 그의 창작연주활동을 통하여 고조선음악이 일찍부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를 취하였다.

만왕조의 군주들은 전조선이나 후조선에서 그러하였던것처럼 천자적지위를 차지하고있었다.

왕밑에는 전조선의 호가에 대등한 대소관료들을 총괄하는 비왕이 있었고 그다음 조선상, 니계상 등 여러명의 상과 장군 등의 중앙관직이 있었다.

만조선의 지방통치제도도 전조선, 후조선과 마찬가지로 국왕이 직접 다스리는 직할지

와 후국왕들이 관할하는 후국들로 갈라져있었다.

만조선은 성립이후 나날이 강화되는 국력에 기초하여 주변의 소국들과 정치세력들을 통합하여 사방 수천리의 령토를 가진 나라로 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침략세력과 당당히 맞서 나라의 존엄을 고수하였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권승안

백두산 (1)

- 조종의 산 -



백두산천지호반에서 발굴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제단유적

량강도 삼지연시의 북부에 위치하고있는 백두산은 조국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서 그 웅장함과 장엄함에 있어서 다른 산들에서 볼수 없는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있어 예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명산중의 명산이다.

백두산은 명산일뿐 아니라 조선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으로 불리우고있다.

조종의 산 백두산

백두산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조선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있는 력사의 산이다.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사시 장철 머리에 흰눈을 띠이고 솟아있는 산이라는데서 유래된것이다.

백두산은 장군봉(2 750m), 향도봉(2 712m), 청석봉(2 662m), 쌍무지개봉(2 626m) 등 2 500m이상 되는 련봉들이 하늘로 치솟아있어 웅장할뿐 아니라 백두산정점에는 천지가 있어 매우 신비로운 산으로 간주되여왔다.

그런데로부터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여겨왔다.

력사적으로 백두산은 불함산, 도태산, 태백산, 개마대산, 백산, 장백산 등 여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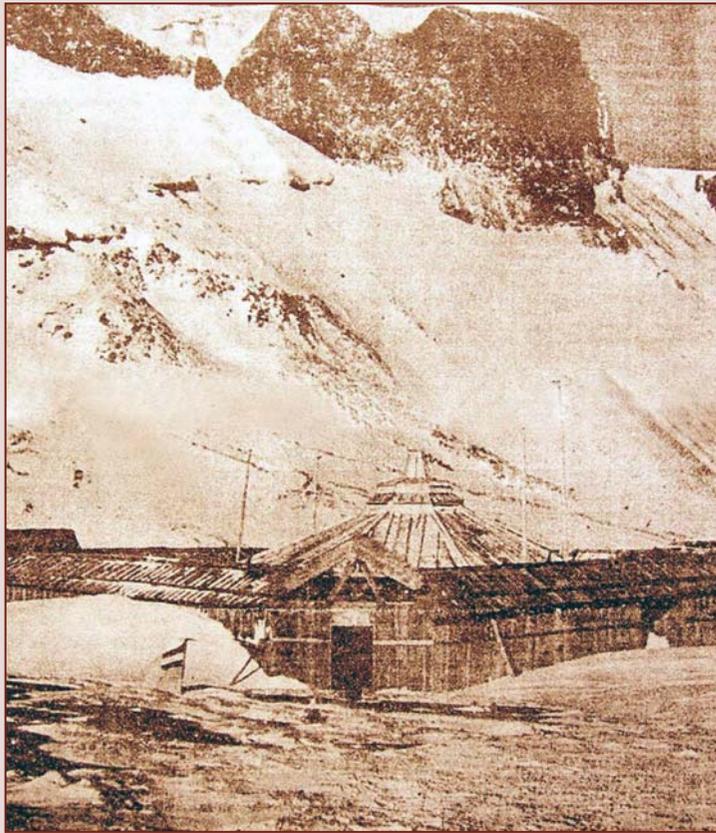
이름으로 불리워왔다.

이러한 이름들에는 하늘처럼 높고 신령스러운 흰 산, 산마루에 사시장철 흰눈이 뒤덮여 옥을 세운 봉우리같다는 등 여러가지 뜻이 담겨져있다.

백두산을 조종의 산이라고 하는것은 백두산이 지질학적 및 지리학적으로 볼 때 조선의 모든 산과 산줄기의 시원, 근본을 이루고있기때문이다.

백두산은 백두대산줄기의 근본이고 시원이다.

장장 1 470km에 달하는 백두대산줄기는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리산줄기의 끝점인 조선남해가의 구재봉(경상남도 하동군)까지 뻗어내렸다.



1906년 백두산천지호반에 세웠던 종덕사

17세기초엽 조선의 실학자 리수광은 《지봉류설》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산은 다 백두산에서 시작된다. 백두산줄기는 마천령산줄기에서 철령을 거쳐 남으로 뻗어 금강산과 오대산, 태백산이 되었고 지리산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서 제주도의 한나산도 백두산줄기에 속한 산이라고 강조하였다.

실학자의 대표적인물이었던 정약용도 지리책 《대동수경》에서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이라고 확인하였다.

선조들은 여러가지 지도를 통해서도 백두산이 조종의 산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16세기에 편찬된 지리책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들 특히는 1861년에 제작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의 백



백두산의 장군봉마루에서 발굴된 대중교의 기본경전인 《천부경》의 석판(돌판에 새긴 종교경전)과 대중교에서 단군을 의미하는 상징물인 삼각형의 푸른색옥돌판



20세기초 천화도인에 의하여 세워진 룡신 비각은 높이가 1m, 너비는 윗부분이 44cm, 아래부분이 58cm, 두께가 10~11cm로서 모두 29자의 한자가 새겨져있다.

백두산분출암을 다듬어세운 이 비석은 100여년세월 백두산의 비바람, 눈바람에 비록 풍화되었으나 글자획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앞면에는 백두산천지의 룡신에 대한 비라는 글이, 뒷면에는 백두산을 지키는 룡신이 이 나라 사람들을 무궁로록 안정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글이 새겨져있다.

비석은 백두산을 성산으로 숭배해온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민족유산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보유적으로 등록되어 장군봉과 향도봉사이의 문턱에 옮겨 세워졌다.

두산줄기가 굽은 선으로 표시되고 그로부터 뻗어내린 지맥들은 자기의 순번에 따라 선의 굵기로 구별함으로써 백두산이 조종의 산임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하였다.

백두산을 력대로 조종의 산이라고 한데는 조선민족이 백두산을 국가의 발상지로,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는 성산으로 간주한데도 있다.

고조선과 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진 조선민족사의 기본흐름을 이룬 국가들은 저들의 국가창건이 백두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백두산의 정기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백두산에 민족의 넋과 슬기, 정기가 깃들어있다고 확신하였

기때문이었다.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시기에 벌써 선조들속에서는 백두산을 원시조 단군과 결부하여 성산으로 숭배하여왔다.

고조선을 계승한 고구려도 자기의 건국을 백두산과 련관시켰다. 고구려사람들은 시조왕 고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자부함으로써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임을 널리 선전하는 한편 건국과정을 백두산과 직접 결부시켰다.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와 고려에서도 백두산을 자기 나라의 건국과 뗄수 없는 성산으로 간주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백두산을 숭배하고 백두산을 국가의 발상지로 여기는 전통적관

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1767년 좌의정이었던 한익모는 우리 나라의 강과 산들이 모두 이 백두산에 근원을 두고있는것만큼 실로 백두산은 우리나라 조종의 국가발상지라고 하면서 나라의 모든 산들이 다 백두산을 시원으로 줄기가 뻗어있기때문에 백두산주변도 력대 조상들이 일떠서고 부흥한 발상지라고 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선조들은 조종의 산인 백두산에 민족의 정기가 깃들어있다고 확신하였기때문에 백두산을 성지, 성산으로 숭배하였으며 이로부터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것을 관례로 삼고 크게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